

21세기의 농업 보급

후지타 야스키(藤田康樹)* · 민성희**

東京農業大學*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Agricultural Extension for the 21st Century

Yasuki Fujita* · Sung Hee Min**

*Tokyo Agricultural University

**College of Agriculture &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ummary

Securing food safety, natural and social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activation of rural communities are some of challenging tasks for the 21st century. National consensus on agriculture as a basic and public industry would be needed to solve these challenging tasks.

Agricultural policy and extension education should be focused on encouraging farmers to achieve better production and management by developing their motivation and ability. Systematic and organizational efforts to make a better environment for farming and farm management should be the major target of agricultural policy and extension services in the future.

To meet changing needs of farmers,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should change programs, functions, information sources, and methods of delivery to adopt experiential learning for farmers. Functions for consultation, suggestion and organization should be extended and advisory services for farmers should be emphasized by providing extension education.

I. 서론-새시대의 인식

1. 21세기의 과제와 해결방법

21세기에 들어 우리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했다. 그것은 ① 안전한 식료의 안정적인 확보이다. FAO의 추정에 따르면 2050년에는 세계적으로 현재 주요식료의 2.5배가 필요하다고 한다. WTO(세계무역기구)의 방책도 변경되고 있다. ② 자연적·사회적 환경의 안전이다. 우선 편의성과 경제성의 측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허락될 수 없다. ③ 지역사회의 활성화이다. 20세기에 일어난 인구의 도시집중을 개선하고, 농산촌이 주가 되는 지역사회의 과소화를 시정하고, 그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 방법은 ① 제1차 산업, 특히 농업을 기본 산업, 공적 산업으로 하는데 국민적 합의를 모으고, ② 교육 방법을 바꿔야 한다. 즉, 지식집적을 위한 계통 학습이 아닌 창조성이 높은 인재를 얻기 위한 경험학습(문제해결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2. 21세기의 농업

이상과 같은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인력 확보, 그 무대인 농촌사회 환경정비, 중·산간지역의 농업을 비롯한 산업 진흥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1세기의 농업은 가족경영이 중심이 되며, 그 경영형태는 매우 다양해질 것이다. 또한 겸업경영이 더욱 증가하여 협력경영 시스템인 집락영농방식도 활성화될 것이다.

가. 농정에서 보급사업의 위치

1) 농업발전의 기본적 요소와 요인

농업을 유지하는 기본은 개별경영체(농가)이고, 그 경영체를 구성하는 요소는 주체(농업자)와 생산·경영 환경이다. 따라서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그 두 가지 요소의 발전·향상을 꾀해야 한다. 즉, 농업자의 의욕을 높이고, 능력을 개발하게 하고, 농업자의 생산·경영 환경을 좋게 해야 한다. 그것이 농업발전의 기본 요인이다.

2) 농정 수단과 보급사업의 역할

농업발전을 촉진하는 농정은 농업자의 의욕을 높이며, 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인적수단은 농업자의 생산·경영환경을 좋게 하는 것이고, 법적 수단·재정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인적수단을 제도적·조직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보급사업이다.

나. 보급활동에서 보급원의 임무

위와 같은 보급사업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보급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연구의 성과와 농정주요과제에 대한 농업자·그룹(조직)·지역사회에의 전달과 그 유효화를 위한 지도 조언.

2) 농업자·그룹(조직)·지역사회 과제해결의 지원과 성과가 필요한 농업자·그룹(조직)·지역사회에의 파급 촉진

3) 위의 (1), (2)의 과정을 통해 파악된 농업자·그룹(조직)·지역사회의 문제점·동향·욕구를 관계자(기관)에게 전달

다. 새로운 보급활동으로의 전환

일본 사회·경제의 변화, 국제정세의 추세 등을 배경으로 농업·농촌생활·농촌사회는 빠르게 변했다. 보급사업도 크게 전환하고 있다. 그 중에 보급활동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4가지 측면에서 보고자 한다.

1) 과제의 전환

농업은 농업생산에 관한 과제가 치우쳐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농업생산물을 판매하는 농가」에 대한 지도조언이 필요하고, 농업경영의 방법에 관한 과제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 지도조언의 내용은 경영의 관점에서 세워진 기술, 판매방법도 포함한 경영에 필요한 수법이다.

생활에 있어서는 의식주에 관한 기술과 생활경영에 대한 과제가 대부분이고, 농촌생활의 향상, 농촌여성의 지위향상 추진 등 그러한 과제에 대한 지도조언의 필요성은 낮아지고 있다. 그 대신에 농촌여성이 단순히 노동자만으로서가 아니라 농업경영자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게 되었고, 농촌사회의 활성화에 공헌하게 되었으며, 여성 자신의 힘으로 농산물 가공 및 수공예를 가지고 활발하게 창업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여성의 활약에 대한 지원 과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의 육성에 관한 과제가 대부분이었으나, 국민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의미도 있고, 또한 비농가의 자녀로 농업을 선택하는 청년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유치원생, 초중학생 등 청소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농업에 대한 청소년육성의 과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2) 기능의 전환

농업자의 교육수준 향상, 정보수집력을 향상 시킴으로써 보급활동의 전개에 있어 기능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농업자에 대한 것으로는 전달기능·유도기능·교육적 기능에서 상담기능·제안기능으로의 전환이다. 또한 이들 기능에 조직화 기능이 더해졌다.

다음으로,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교육 기능에 변화는 없다. 단,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복잡화로 청소년의 환경정비 기능이 필요하게 되었다.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는 정신적·경제적·사회적인 3가지 측면이 필요하다.

그러한 기능의 구체적 발현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4에서 서술하겠다.

3) 課題源의 전환

課題源(소스)은 3가지다. ① 시험연구성과·주요 농정과제, ② 보급센터 자체의 판단사항, ③ 농업자 및 지역사회의 욕구이다. 이제까지는 ①, ②에 치우쳐왔으나 이제부터는 ③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21세기의 과제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는 것이며, 그 해결을 위한 지혜는 농업자 및 지역사회로부터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라. 상담·제안기능 발현 방법

1) 상담기능

농업자의 과제를 유형화하면 3가지이고, 그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은 5가지 스텝을 밟게 된다(자료 1의 표1). 그러한 과정을 빠르게 하는 방법의 요점은 자료 1의 표 2와 같다. 최근에 농업자의 과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의 영향매체를 조사한 결과(자료2의 그림 1), 보급원에게 거는 기대는 과제해결에 직접 연결된 상세정보의 제공과 정보를 처리하여 고안해낸 해결책의 선택에 대한 조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에 대한 보급원의 대응은 「상담

(컨설팅)기능」이다.

2) 제안기능

새로운 기술 및 경영에 도전하는 농업자의 출현, 지역사회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보급원은 그 기능발현이 필요하게 되었다. 방법으로는 자료1의 표1 「새로운 것의 창조」의 과정을 빠르게 하고, 보급원으로서 중요한 것은 제3의 단계에서 아이디어 제안을 지원하는 것, 즉 보급원들도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하는 것이다.

3) 조직화 기능

상담기능과 제안기능은 조직화 기능과 연결될 때 그 발현이 효과적이다. 상담기능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같은 과제를 가진 농업자를 조직(그룹)화해 감으로써 과제해결이 보다 촉진됨과 동시에, 과제해결자도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제안기능도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경우에는 농업자를 조직(그룹)화 함으로써 구체화되어 간다.

마. 보급활동의 기본적 능력

21세기에 들어 보급활동을 구현하는 기본적 기능을 구성하는 요소는 ① 농업생산·경영에 관한 최신 지식·정보의 취득과 현지의 문제분석과 대책 구성력, ② 현대적인 보급방법의 체득, ③ 농업자간의 신뢰관계/「농업자 입장에선」자세의 3가지이다. 그러한 요소를 함께 갖추었을 때 기본 능력이 발휘된다.

바. 세계의 보급사업

1) 제도론의 관점에서

우선 사업주체 면에서 보면, 나라나 주(현·도)정부, 단체, 민간을 들 수 있다. 국가에 있어서 농업의 사회적·경제적 위치, 농업자의 지식·기술수준의 변화에 의해 좌에서 우로 이행

해 간다. 또한 재원의 면에서 보면 공적, 공적+사적, 사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사업주체와 같은 배경의 변화에 의해 좌에서 우로 이행해 간다. 일본은 현재 바로 중간으로 이행해 가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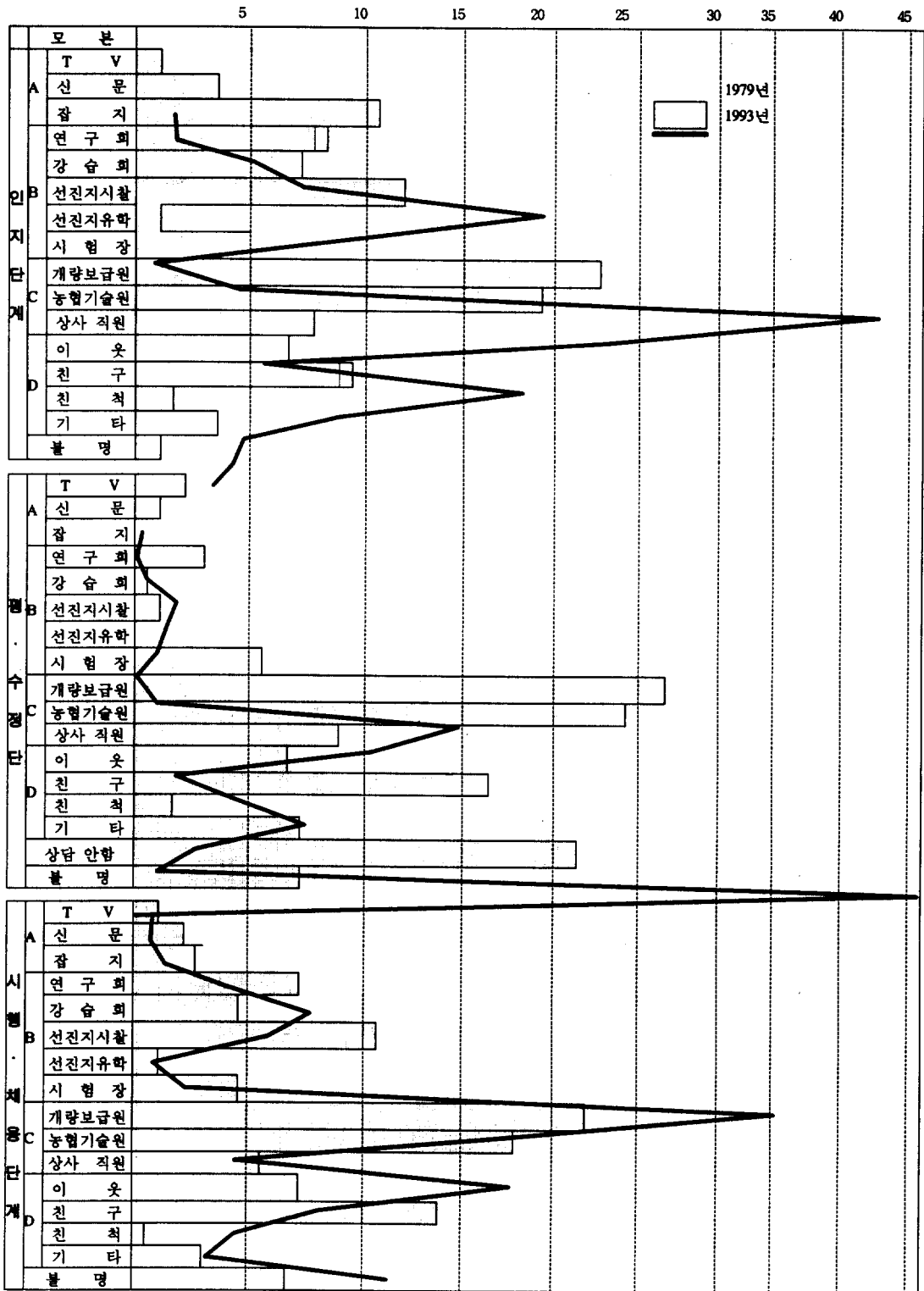
2) 기능론의 관점에서

보급활동의 기능은 전달기능, 유도기능, 교육적 기능, 제안기능을 들 수 있다. 사업주체와 같은 배경의 변화에 의해 좌에서 우로 이행해 간다. 일본은 우로 이행해 가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역도 Extension Service에서 Advisory Service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II. 맺는 말

일본의 보급사업은 21세기 초두에 큰 전환기를 맞고 있다. 국가 번영과 국제공헌, 농업의 발전과 농업자의 행복을 위해서 보급사업은 미래지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림 1〉 신기술 도입의 매체별 영향

<자료 1>

농업자의 과제해결과정과 그 촉진 방법

<표 1> 과제해결의 경우와 단계

케이스 스텝	문제개선	새로운 것의 도입	새로운 것의 창조
①	막연한 문제의식	인지	발전 욕구
②	문제의식의 명확화	관심의 심화	욕구내용의 명확화
③	해결책 마련	평가·수정	아이디어 제안
④	시행	시행	시행
⑤	실시	채용	실시

<표 2> 과제해결을 촉진하는 방법의 요점

스텝	농업자·집단의 실시내용의 요점	보급활동의 요점
①	새로운 정보에의 접근과 과제의식의 심화	정보제공
②		
③	1. 정보수집 2. 정보처리	1. 정보제공 2. 정보처리방법의 조언
	집 단 1. 집단토의 2. 개별적으로 해결할 사항의 명확화	집단사고를 촉진
④	해결책의 선택	선택조건 시사
⑤	기자재 등의 준비	기자재 등의 알선
	집 단 역할 분담	適材에 의한 役割분담 조언

〈자료 2〉

청년농업자의 형성과 지원

1. 21세기 농업의 담당자

21세기 과제해결을 위해서는, 농업이 기본적·공적 산업으로서 자리매김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농업의 담당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농업은 이와 같은 위치에 설 수 없다. 따라서 21세기 농업의 담당자, 즉 앞으로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청년의 출현을 촉진시켜야만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은 직업으로 농업을 선택하는 청년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1990년에 이르러서 멈추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타산업의 불황이라는 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본인, 그 중 청소년의 가치관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 것에 기인한다. 그 가치관은 자연회귀가 심화되는 풍조 가운데 농업의 가치에 대한 재발견이다.

일본은 그런 동향을 좋은 기회로 삼아 관계자들이 방안을 찾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직업으로 농업을 선택하는 청년의 출현과 그 청년이 농업경영자로서의 능력·경험기반의 획득을 조장하기 위해 관계자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또한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그 요점을 아래에 기술하겠다.

2. 청년농업자의 형성에 필요한 기본적 관점

(1) 「직업으로서 농업을 선택」하는 청년

<어쩔 수 없이, 집의 농업경영을 계승하는 청년>이 아니라, 「직업으로서 가치있는 농업을 선택하고 취농하는 청년」으로의 변화이다. 이것은 앞으로의 「청년농업자의 형성」조장을 위한 적

절한 방안을 창출하기 위해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인식이며, 어떠한 노력·방안도 그 인식을 대전제로 한다.

(2) 「형성조장」의 개념

「직업으로서의 가치있는 농업을 선택하고 취농하는 청년」은 <자기노력에 의해 청년농업자로서의 주체성을 가진 청년의 탄생(형성)>이다. 따라서 관계자는 이제까지와 같이 지도자 주도의 청년농업자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청년의 형성을 조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3) 청년농업자형성에 있어서의 4가지 단계

청년농업자의 형성은 ①농업관심 양성기, ②농업교육(학습)기, ③ 취농의사 결정기, ④ 청년농업자기(인턴기)의 4가지 단계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년농업자 형성의 조장은 이 4가지 단계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4) 「형성조장」에 필요한 기능

청년농업자의 형성조장에는 ① 교육기능, ② 환경정비기능(정신적·사회적·경제적 환경)의 두 가지 기능이 필요하다.

(5) 「형성조장」에 관련된 직접 관계자와 역할 분담

청년농업자의 형성조장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市町村(농업단체도 포함), 보급사업, 현·국가 관계행정기관의 관여가 필요하고, 그러한 관계자 사이에는 긴밀한 연대·협력에 의한 일체화된 진행이 불가피하다.

위의 기능이 상호이해 하에 분담되는 것이 필요하고, 교육기능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보급사업, 정신적 환경 정비기능은 가정, 보급사업, 사회적·경제적 환경 정비기능은 지역사회, 시정촌, 현·국가 관계행정기관이 분담하게 된다.

3. 「형성조장」에 관련된 직접 관계자의 역할

(1) 가정/교육, 정신적 환경 정비

「청년농업자 형성」에서 가장 큰 책임을 갖고 농업관심 양성기, 농업 교육기, 취농의사 결정기, 청년농업자기의 전 단계를 통해서 영향이 큰 것은 「가정」이다. ① 농가, 비농가에 관계없이 농업관심 양성기에 「자연·농업에의 친밀감」을 갖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열심일 것, ② 농가인 경우에는 농업에 대해 돌입하는 자세·태도, 가치관등을 요소로 하는 「부모의 등」을 자연체로 보일 것, ③ 취농의사 결정기, 청년농업자기에는 <정신적·물리적 환경조성>에 配應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학교/교육

「청년농업자 형성」에서 농업관심 양성기, 농업 교육기, 취농의사 결정기에 교육기능으로서 가정 다음으로 영향력을 가진 것이 학교이다.

초·중학교는 21세기 공업화사회 번영에 공헌하는 교육내용으로서 수학·물리·화학 증시, 교육방법으로서 계통학습 편중의 교육에서 탈피하고 21세기에 필요한 인간성·창조성 높은, 자연과 공생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농업에 관한 교육」을 교육과정 중에 저학년부턴 넣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 방법도 경험학습(문제해결학습)을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중시해야 한다.

농업고교에서는 「자연학습·생물학습·농업

학습을 기본으로 하는 특색있는 후기중등교육으로 입장을 정하고, 이 영역에 관련된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탈공업화 시대, 자연과 공생하기 위해 궁리하고 노력하는 시대,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시대, 창조성·상상력이 풍부한 인재가 필요한 시대인 21세기인의 양성이자 21세기에 요구되는 교육의 「先取」이다.

농업대학교는 일본 농업교육의 중심이고, 실천력의 체득을 목표로 하여, 그 교육방법도 경험학습(문제해결학습) 방법으로 「프로젝트방법」을 채용하는 독자적인 존재였다. 그 독자성을 이후에도 일본 농업교육의 중심에 두기를 바란다. 또한 제도에 대하여 「이원적 농업교육」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교육이 다양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농업대학교의 농업교육으로 청년농업자 양성을 완결시킨다고 하는 사고방식은 피해야 한다.

농학계 대학은 21세기의 농업자가 그 필요한 능력, 덧붙여 농업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고학력자의 증가가 당연한 결과라는 시류를 읽고 이제까지 농업관련행정·시험연구·기업의 요원 양성 편중에서 탈피하고, 농업경영자·현지지도자 양성을 위한 바람직한 커리큘럼 연구와 그 실시대학의 출현을 기대한다. 또한 그 계기는 교육방법에 있어서 농업경영자·현지지도자 양성은 물론 그밖에도 계통학습 편중에서 경험학습(문제해결학습)도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3) 지역사회/교육, 정신적·사회적 환경 정비

무엇보다도 <지역농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지역농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 사람들이 미래에 정열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창조성이 풍부한 것이고, 지역사회도 민주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좋은 리더가 존재한다는 증거이

다. 이와 같은 점에서 후배가 키워 지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이렇게 하여 청소년 교육과정에 <교육기능이 발휘되는 3가지 場> 중 하나인 지역사회 교육기능 발현을 기대한다.

(4) 시정촌/사회적·경제적 환경 정비

시정촌은 주민과 직결된 자치체로서 「청년농업자 형성」에 관련된 가장 가까운 공적책임자를 말한다. 시정촌의 기본적인 공적 역할로 바람직한 것은 시정촌농업계획(마스타플랜)을 바탕으로 정합성을 가진 「청년농업자 확보·육성 계획」을 책정하는 것이다. 즉, 시정촌 농업계획에서 주장하는 농업·농촌의 방향성 중에 담당자가 될 청년농업자의 양적 확보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청년농업자 형성」조장·지원 방법은 그 계획에 따라 공적 근거를 얻어 보편화하고, 현 및 국가에서 지원 받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보다 強固한 전개를 촉진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5) 농업개량보급센터 /교육·정신적 환경 정비

보급원은 「청년농업자형성」에서 농업관심양성기, 농업교육기, 취농의사결정기, 청년농업자의 전 단계에서 관계를 갖게 된다. 그러나 그 중에서 보급원의 책임이 가장 크고, 오리지날을 발휘해야 하는 것은 청년농업자에게 <농업경영자 능력의 소지를 만드는 조장활동>이다. 농업교육의 시각에서 말하면 「인턴」단계의 책임이다.

(6) 도도부현·국가/사회적·경제적 환경 정비

국가·도도부현의 「청년농업자 형성기」에 관

한 방안은 몇 가지의 전환·진전을 보이고 있다. 즉 유턴 청년, 신규참여청년을 포함한 방으로의 전환, 또 다른 하나는 농업관심 양성기, 취농의사 결정기에 대한 정책의 추진이다. 그리고 이를 환영하면서 덧붙여 바란다면 다음과 같다.

그 하나는 집락영농체의 중심이 되는 담당자로서의 청년농업자를 확보하는 것이 아주 긴요하고, 이를 위한 시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농업자의 개념을 전업(주업)적 취농청년만이 아니라 겸업(부업)적 취농청년자도 포함시켜 생각해야 한다.

둘째로는 중산간지역의 젊은 인력 확보를 위한 시책이다. 중산간지역의 젊은 인력이란 농업인력임과 동시에 「녹색 관리인」이며, 「과소화 사회의 유지자」인 것이다. 그들은 소위 국토보전이라고 하는 공적 역할도 맡고 있으므로 이 사람들에게 공적 지원은 당연하다. 일본형 디카프링(조건불리지역대책)이 절실히 요망된다.

셋째는 농업경영의 상속에 관한 시책이다. 농업경영의 계승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계승자는 「농가자산 상속」의 어려움에 직면한다. 농지를 비롯한 농업자산의 세분화를 피하기 위한 법적·재정적 뒷받침에 대해서 신규참여청년도 포함시킨 연구와 시행이 요망된다.

넷째 청년농업자에 관한 시야와 대책 중에는 최근의 취농경로의 다양성에 따라 신규참여청년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앞에 쓴 것과 같은 사태도 있으므로 겸업(부업)적 취농청년도 포함시켜 두어야 한다.

〈자료 3〉

일본의 보급사업

농림수산성 농산원에국
보급교육과, 부인생활과

1. 일본 보급사업의 특징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한 협동사업

중앙정부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식료의 안정 공급, 지역경제·사회 안정과 유지 발전, 국토·자연환경 보전 등의 관점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의 육성, 중산간지역 등의 농촌지역 활성화, 환경보전에 관한 과제의 적극적 대응 등 농정 방향에 입각한 보급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의 농업·농촌의 진흥방향에 따라서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보급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국적인 기술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지방정부의 기술교환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갈 때에도 중앙정부가 나타낸 기본적인 방침에 사업추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합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협력사업의 틀이 불가결하다.

이를 위해 보급사업은 중앙의 과제와 지방정부의 과제의 조화를 이뤄 통일된 방침아래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업개량조장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협력사업(협동농업보급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정책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구조로서,

② 지방정부에 의한 지역농업개량보급센터 설치와 일정 자격을 가진 보급직원(개량보급원과 전문기술원)의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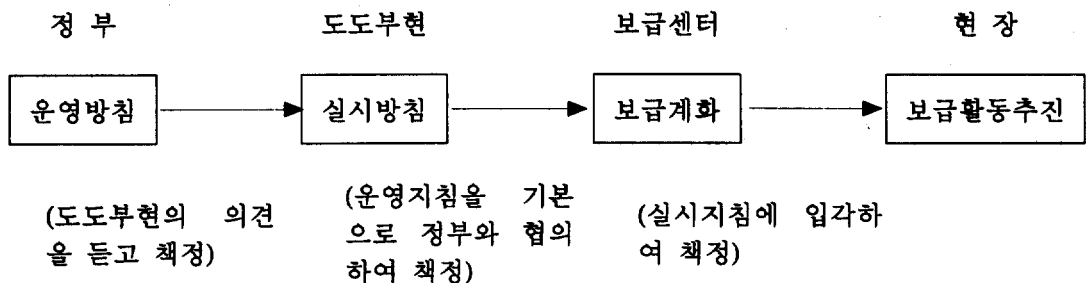
* 개량보급원은 지역농업보급개량센터에 소속되어 직접 농업자와 접촉해서 보급활동을 실시

* 전문기술원은 지방정부의 농업시험장 또는 본청에 배치되어 시험연구기관이나 행정과 연대를 피하면서 각 전문항목에 관해 조사연구하고 아울러 개량보급원을 지도(본래의 임무에 지장없는 범위라면 농업자의 직접지도도 가능)

③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농업대학교에서 농업후계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실시

④ 보급사업에 드는 경비로서 중앙정부에 의한 「협동농업보급사업 교부금」의 교부를 실시하고 있다.

①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침에 따라 사업 추진 (협동농업보급사업의 「운영방침」과 「실시방침」의 흐름도)



(2) 시험연구기관과 농업자와의 매개

협동농업보급사업은 농업자와 지역의 욕구를 바탕으로 시험연구기관에 대해 기술개발을 요청하고,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해 지역실정을 감안하면서 현지적용실증을 하여 보급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성에서는 관계기관과 일체가 되어 추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담당자가 꿈과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기술 혁신의 핵심기술(키 테크놀로지)(일본형 답리작 기술)을 급세기 중에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최근의 기술 고도화·다양화의 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보급체제를 고도화시키기 위해 보급직원은 국내의 시험연구기관 파견연수를 실시하고, 정보 네트워크를 정비·활용함으로써 기술보급을 빠르게 하고 있다.

(3)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업

농업의 발전은 농업자 개개인의 의욕과 기술력에 의존하는 바가 크므로 보급사업은 직접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량보급원과 농업자와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여 상시 현장에서 직접 농업자와 접촉하여 기술·경영 등에 관한 보급활동을 한다. 이와 같이 현장과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기술·경영개선에 돌입하려고 하는 농업자를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농업을 짊어질 청년농업자에 대해서는 취농 정보 제공, 단기 연수 등의 신규취농 촉진을 위한 보급활동을 하면서, 성장단계에 따라 연수 교육과 자주적 활동을 촉진하는 등 자질 향상을 위한 보급활동을 하고 있다.

(4) 농업과 생활을 하나로 하는 활동

농업생산과 농가·농촌생활은 극히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게 하는 매력있는 경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생활의 양면이 일체적이고 동시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족 경영이 대중을 이루는 일본에서는 가족 구성원에게 과중한 부담이 걸리기 쉽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농업경영 참여와 노동시간, 작업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생활시간까지도 시야에 넣는 종합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협동농업보급사업은 농업과 생활개선을 일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보급직원과 그 활동

보급사업에 종사하는 전문 직원으로 개량보급원과 전문기술원을 각 도도부현에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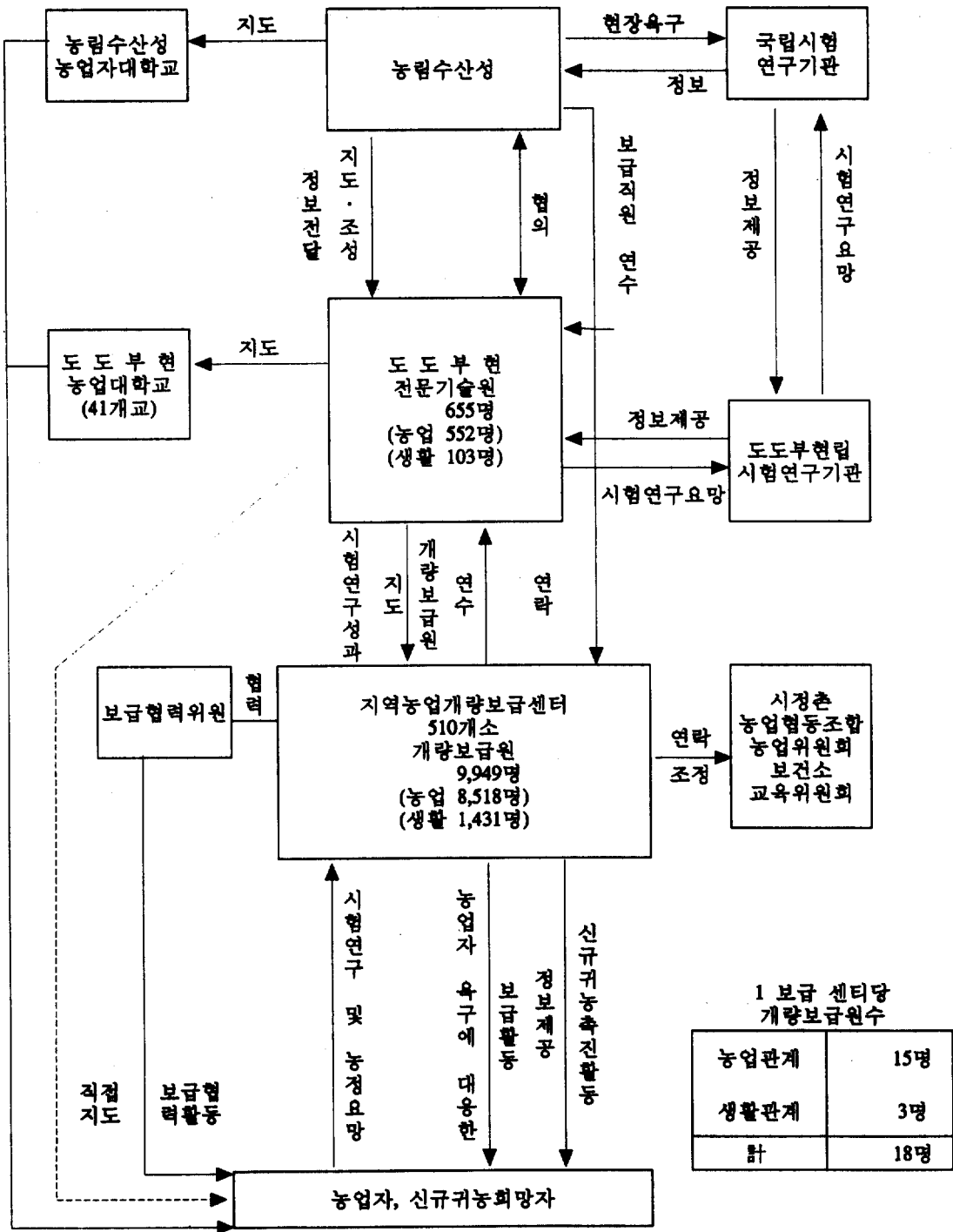
(1) 개량보급원

개량보급원은 지역 농업개량보급센터를 거점으로 직접 농업자와 접촉하여 기술과 경영에 관한 상담, 정보 제공, 전시포 설치, 실증모델 농업자 설정, 연수·강습회 개최 등의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부 개량보급원은 현의 농업대학교에 소속되어 농업후계자들의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가. 활동체계

개량보급원의 활동체계는 개량보급원들이 상호 밀접하게 연대하여 고도의 종합적인 보급활동을 계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할구역내의 농업 및 농촌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농업개량보급센터의 총체력이 발휘될 수 있는 활동체제로 되어 있다.



<그림 2> 협동농업 보급사업의 구조

주 : 수치는 1998년 4월 1일 현재(보급교육과 자료)

자료 : 협동농업보급사업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사(1994년도)

구체적으로는,

① 관할구역을 몇 개의 활동지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활동지역마다 개량보급원으로 구성되는 팀을 편성하여 활동하는 방식(지역분담방식)

② 개량보급원이 전문분야별로 필요에 따라 몇 개의 팀을 편성하여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방식(전문분담방식)

③ 위의 ①과 ②를 병용한 활동방식(병용방식) 등의 방식 중에서 관할구역내의 농업 및 농촌실태에 입각한 적절한 활동방식을 정하고, 팀의 보급활동을 총괄하는 개량보급원을 두어 팀내의 개량보급원들이 상호 협조를 꾀하면서 항상 지역의 농업자에게 밀착하여 활동하고 있다.

또한 시정촌의 창구역할을 하는 개량보급원을 두고 시정촌의 보급사업과 관련된 중요시책과 보급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을 파악하는 등 시정촌과 관계기관·단체와 밀접한 연대를 꾀하면서 지역에 밀착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활동 내용

<주요 활동 예>

* 기술과 산지조성에 대한 지원

① 실증포 설치, 강습회, 정보지를 이용하여 환경과 조화될 수 있게 한 지역 조건에 입각한 신기술·종합기술의 도입, 보급

② 토양진단에 기초한 토양조성 지도, 기상데이터 등을 토대로 작물의 생육진단·예측에 의한 계획적인 작업과 안정적 생산 추진

③ 지역에 적합한 작물의 산지화와 연작장해를 막기 위한 연작체계 검토

④ 보급협력위원(민간 전문가)의 활용에 의한 농산물 가공, 마케팅 지원

⑤ 보조기구 도입, 지역내 노동력 조정체계 정비 등 노동개선 추진

* 경영개선에 대한 어드바이스

① 작업일지, 부기 등의 기장 지도와 기장 결과에 기초한 경영분석·진단, 취업조건 개선을 위한 지원

② 규모확대와 신규작물 도입시 수지와 노동시간 시산, 경영개선목표 책정, 법인 경영설립에 대한 지원

③ 토지취득과 기계구입에 유리한 각종 제도자금에 대한 상담과 차입 후의 기술·경영개선에 대한 지원

④ 취업조건 등의 명문화를 통한 가족 구성원 상호간의 원칙 제정(가족경영협정 체결)추진 등 농업경영에서 여성의 능력 발휘를 위한 지원

⑤ PC연구회와 강습회를 개최하여 경영 관리에 컴퓨터 활용

* 조직과 마을 가꾸기에 대한 지원

① 신규 취농자를 위한 기술, 경영, 자금 등에 관한 정보 제공·상담, 청년농업자에 대한 농밀한 지원, 농촌 청소년 단체활동(4H클럽)에 지원

② 경영에 과잉투자 방지, 비용절감을 위한 공동이용 조직 구성과 조직 활성화·재편을 위한 지원

③ 지역의 비전 수립, 지역자원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등 지역 진흥 활동, 산지 직매, 농작업 체험, 농촌 체제를 통한 도시주민과의 교류 활동 지원

④ 집락(마을)배수사업 등 농촌생활환경 개선

⑤ 농촌 여성조직의 창업활동 지원

(2) 전문기술원

전문기술원은 도도부현의 시험연구기관과 현의 본청에 배치되어 시험연구기관들과 밀접하게 연락하며, 전문적인 사항 또는 보급활동의 기술 및 방법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아울러 현장에서 활동하는 개량보급원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가. 개량보급원에 대한 지도

각 도도부현 내의 지역농업개량보급센터, 보급지도 현장 등을 순회하고, 개량보급원을 지도 하면서 개량보급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나. 조사연구

개량보급원에 대한 지도를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 생산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술과 경영에 관련되는 문제 또는 농촌생활과제 해결방법 등에 대하여 농업자 포장에서 실증조사를 실시하고 실험연구, 자료조사, 실태조사 등을 하고

있다.

다. 시험연구기관과의 연대

시험연구기관, 도도부현 행정부국, 시정촌, 농업단체, 교육기관 등과 밀접한 연대를 유지하며 개량보급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라. 농업자 지원

개량보급원에 대한 현지도 및 조사연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직접 농업자와 접촉하여 활동하고 있다.